



## 도시바, 백색가전 원격조정기기 가을에 출시

일본 도시바가 휴대폰으로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백색 가전 제품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지이신문이 보도했다.

도시바가 출시할 예정인 통신기기인 '게이트웨이'는 지난해부터 산요전기, 샤프, 미쓰비시전기 등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인터넷 가전규격인 '레디'를 채용한 제품으로 이들 4개사 제품에서 모두 동작 가능하다. 이 기기를 우선 제품에 부착하고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인터넷 가전기기의 출현으로 지난 1980년대 후반 이후 침체에 접어든 일본 백색가전 시장이 활기를 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레디 규격에선 휴대폰으로 기기의 동작 상황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일본에선 이 규격 외에도 마쓰시타전기산업과 히타치제작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인터넷 가전규격이 있다.

## 마쓰시타·툼슨·JVC, 리사이클 분야서 제휴

일본의 마쓰시타전기산업, 일본빅터(JVC), 프랑스 AV업체인 톼슨이 유럽연합(EU)의 리사이클 강화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제휴관계를 맺었다고 니혼게이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3사의 리사이클 제휴는 EU가 맹국들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리사이클 의무화에 대비, 공동으로 협력해 자원재활용에 들어가는 원가를 줄이고 규제법을 준비하는 각국에 업체 부담을 경감토록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사는 우선 세부적인 규제법이 결정된 독일에서 현지 리사이클 업체 및 물류업체에게 재처리 업무를 일괄 위탁하기로 했다. 독일에서의 3사 합계 AV기기 판매 점유율은 15~20%에 달하며 이에 준하는 리사이클화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3사는 또 독일 이외 아직 규제법의 내용이 불투명한 국가를 상대로 업체 부담이 경감되도록 요청하고 다른 업체들의 참여도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 EU는 TV, PC, 휴대폰 등 전기·전자기기 총 99품목을 대상으로 내년 8월부터 업체에 폐기품의 리사이클을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규제는 가맹국들이 개별적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 멕시코, 디지털TV 방송 급물살

멕시코가 영화수준의 화질과 CD 수준의 음질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TV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통신·운송부는 최근 디지털 TV 기술 표준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신·운송부는 관보를 통해 "디지털TV 표준 채택이 멕시코의 기술적·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멕시코는 멕시코시티, 과달라자라, 몬테레이와 6개의 국경 도시에서 2006년까지 최소 2개 채널의 상업 디지털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까지 모든 아날로그 채널을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멕시코는 극빈층이 5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TV 시청인구가 90%에 달하고 있다.

## 美, 초고속컴퓨터 '승부수'

미국 하원이 일본과 초고속 컴퓨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슈퍼컴퓨터 개발촉진법을 통과시켰다고 EE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고성능 컴퓨팅 개발촉진법'과 '에너지부 하이엔드 컴퓨팅 개발촉진법'이란 두 법안은 미국 과학자들이 연구상 필요할 경우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전미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 등 각 기관은 과학자들의 자유로운 슈퍼컴퓨터 접근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에너지부 하이엔드 컴퓨팅 개발촉진법'은 미국 에너지부가 조직내 슈퍼컴퓨터 연구조직을 만들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의 사용자 단체를 구성해 과학자들에게 공정한 슈퍼컴퓨터 사용기회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미의회의 움직임은 과학기술경쟁에서 중요한 슈퍼컴퓨터분야에서 일본이 선두로 나선데 따른 미국측의 대응으로 분석된다. 일본 NEC는 지난 2002년 당시 최고속 슈퍼컴퓨터보다 몇 배 더 빠른 슈퍼컴퓨터 '어스시뮬레이터'를 선보여 미국과학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미국 하원이 일본과 초고속 컴퓨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슈퍼컴퓨터 개발촉진법을 통과시켰다고 EE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고성능 컴퓨팅 개발촉진법'과 '에너지부 하이엔드 컴퓨팅 개발촉진법'이란 두 법안은 미국 과학자들이 연구상 필요할 경우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전미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 등 각 기관은 과학자들의 자유로운 슈퍼컴퓨터 접근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에너지부 하이엔드 컴퓨팅 개발촉진법'은 미국 에너지부가 조직내 슈퍼컴퓨터 연구조직을 만들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의 사용자



자 단체를 구성해 과학자들에게 공정한 슈퍼컴퓨터 사용기회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미의회의 움직임은 과학기술경쟁에서 중요한 슈퍼컴퓨터분야에서 일본이 선두로 나선데 따른 미국측의 대응으로 분석된다. 일본 NEC는 지난 2002년 당시 최고속 슈퍼컴퓨터보다 몇 배 더 빠른 슈퍼컴퓨터 '어스시플레이터'를 선보여 미국과학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 세계 이통장비시장 내년부터 2008년까지 하락세

IT경기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선통신장비시장이 오는 2008년까지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시장조사기관 양키그룹의 자료를 인용해 세계 이통장비시장이 올해 468억달러 규모를 정점으로 향후 4년간 14.5% 감소, 2008년에는 400억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통신장비구입비가 주요 이통서비스업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2~2007년 사이 11.3%에서 6.8%로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이처럼 어두운 전망은 각국의 3G 이통서비스가 본격화되고 휴대폰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는 등 IT업계 전반의 낙관적 분위기와 상충되는 것이다.

양키그룹은 이통장비업체가 향후 수년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지나친 가격인하경쟁과 차세대 무선통신장비의 유례없는 효율성을 지목했다.

이 회사의 필립마살 무선 연구담당은 "3세대 이통장비수요를 겨냥한 업체간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연간 20%씩의 가격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내년부터 무선통신장비시장이 가

파른 내리막길을 타며 사양길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3세대 이통장비는 전세대 장비보다 투자대비 효율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통신장비의 구매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모건스탠리와 PA컨설팅그룹도 세계 통신시장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년간 이통장비업체가 위축된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한편 양키그룹은 지난해 세계 이통장비시장에서 스웨덴 에릭슨이 점유율 29%로 선두를 유지했고 노키아 (13%)와 지멘스AG(11%), 모토로라(10%)가 뒤를 이었다고 발표했다. 또 루슨트테크놀로지(9%)와 노텔은 각각 9%, 알카텔은 6%, 중국 화웨이와 ZTE, 삼성전자, LG전자가 나머지 시장수요를 차지했다. 지역별 시장전망을 살펴보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내년 한 해에만 20%나 시장규모가 감소하고 아태지역도 2004~2008년 사이 1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미시장은 2006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 세계 칩 판매량 35% 상승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세계 반도체 칩 판매량은 814억6,000만달러로 작년 동기의 603억달러보다 35.2%가 상승했다고 실리콘스트래티지스가 미국 반도체공업협회(SIA)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월 세계 칩 판매 실적은 168억2,000만달러로 3개월간 월평균치인 173억2,000만달러보다는 낮았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장세는 아태지역, 특히 두번째로 큰 칩 시장인 일본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아태지역의 실제 판매 실적은 5월에 72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의 43억5,000만달러에 비해 65.7% 성장했다. 일본은 5월에 36억4,000만달러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3% 상승한 것이다.

### 소니에릭슨, 중국에 R&D센터 건립

소니에릭슨이 중국 휴대폰 업체의 경영권을 확보해 극동지역 연구개발(R&D)센터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니에릭슨은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얻어 제후사인 베이징 에릭슨 푸티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지분 10%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소니에릭슨은 기존 지분을 포함해 이 회사 지분 51%를 확보, 사실상 경영권을 거머쥐었다.

소니에릭슨의 경영권 인수에 따라 기존 합작법인은 사명을 베이징 소니에릭슨 푸티안으로 바꾸고, 극동지역 R&D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다. 중국의 푸티안, 난징판다, 영싱 등 다른 주주들도 소니에릭슨의 경영권 인수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마일스 플린트 소니에릭슨 회장은 "소니에릭슨이 설립된 이래 전략적 요충지인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중국 R&D센터의 육성을 통해 중국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스웨덴, 휴대폰 가입자가 총 인구보다 많아 화제

휴대폰 가입자가 인구 수보다도 많은 나라가 등장, 화제를 모으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스웨덴의 총 인구 수는 898만 명인데 반해 휴대폰 가입자 수는 907만명으로 휴대폰 가입자가 인구 수보다 9만명 더 많았다. 이 기간중 휴대폰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0% 늘어났는데 이로써 스웨덴의 휴대폰 보급률은 100.1%가 되었다. 스웨덴 통신업계 회보인 텔레콤마크 나덴은 휴대폰 가입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올해 말에는 9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총 인구보다 많은 휴대폰 가입자 수를 기록하게 된 것은 상당수의 스웨덴 사람들이 개인용 휴대폰과 업무용 휴대폰을 각각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AFP는 분석했다. 한편 2003년 스웨덴의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2002년보다 2% 감소한 540만으로 조사됐다.

## ■업체들 HDD 증산체제 돌입

일본 하드디스크(HDD) 업체들이 경기 회복과 디지털 가전 제품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HDD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일제히 증산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히타치제작소, 후지쯔, 도시바 등 일본 HDD 3사는 올해 생산대수를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 9,000만대로 잡고 있다. 특히 세계 기술력을 주도하고 있는 2.5인치 이하 소형 디지털 가전용 HDD의 생산을 강화해 해외 기업들을 따돌린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 최대 HDD업체인 히타치제작소는 자회사인 히타치글로벌스토리지테크놀로지스(미 캘리포니아 소재)를 중심으로 태국 현지 공장에

향후 3년간 약 220억엔의 자금을 투입해 생산능력을 기존 2배인 연 6,000만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 카메라용 등 용도로 개발하고 있는 1인치형 HDD를 연내 분기 생산량 기준으로 200만대까지 늘려 연초 대비 10배 이상 증산할 계획이다. 또 중국 심천에서도 내년말 가동을 목표로 약 550억엔을 투입해 신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후지쯔는 올해 2.5인치형 HDD 출하량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1,400만대로 늘린다. 이를 위해 주력 생산 거점인 태국 공장의 생산라인 증설 및 신상품 개발에 약 100억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월 생산대수는 90만대이지만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150만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회사는 서버 등 정보기기용에 쓰이는 3.5인치형 HDD도 생산하고 있지만 올해 450만대를 생산, 전년 대비 100만대 가량 증산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2.5인치 이하 HDD의 경우 노트북 PC, MP3 등 디지털 가전, 카내비게이션시스템 등 용도로 확산되고 있어 대폭적인 증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시바는 9월에 세계 최소형인 0.85인치 HDD를 월 20만대 규모로 양산할 계획이다.

한편 HDD 세계 시장은 지난해 2억 6,000만대였으며 이 가운데 서버 및 PC 등 정보기기용이 약 80%이고 디지털가전용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정보기기용 HDD가 성숙기에 접어든 것과 달리 디지털 가전용은 향후 휴대폰 및 PDA 등 활용 범위가 확산돼 연 50% 전후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 ■중, 단순 기능 휴대폰 '인기몰이'

세계 통신업체들이 최신 기술인 3

세대(3G) 이동통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단순한 기능을 가진 휴대폰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리틀 스마트(중국명:샤오링통)'라고 불리는 저성능 휴대폰 서비스 가입자는 중국 전역에 걸쳐 5,000만이나 된다.

처음 개발된 일본과 중국 이외의 지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리틀 스마트 휴대폰은 시내 통화와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본 기능만 갖추고 있다. 시외 통화도 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2km 까지만 송신이 가능한 특수 안테나가 설치된 기지국을 통해 전파를 수신한다. 안테나의 출력을 낮추었기 때문에 통화 음질이 낮고, 때때로 도시 내에서 이동하거나 기지국이 바뀔 때도 끊어짐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성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리틀 스마트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중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민층과 시골 사람들 덕분이다. 이들은 저렴한 단말기 가격과 사용요금으로 인해 리틀스마트를 선호한다.

리틀 스마트의 분당 통화요금은 일반 무선 전화요금의 20~2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중국 정부도 서비스 확산에 한 몫 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은 일부 유선전화 사업자들이 무선사업허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으며, 리틀 스마트 확산을 사실상 허용해 왔다.

작년에는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에도 리틀 스마트 서비스가 시작되어 많은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러한 가입자 증가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넛콤 등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대형 무선전화 사업자들의 성장 요인이 되었다. 애널리스트들은 차이나넛콤의 신규 가입자의 대부분은 리틀 스마트 가입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최대 무선 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 가입자의 36%가 리틀 스마트 이용자다.

루슨트테크놀로지의 로저 하인스 부회장은 “매년 리틀 스마트 서비스의 성장속도에 매우 놀란다”고 말했다. 하인스는 자세한 매출액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 휴대폰업계, 3G 개발 박차

중국 휴대폰업계가 3세대(3G) 제품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휴대폰 가입자수 3억명을 돌파한 중국이 3세대(3G) 휴대폰 및 차세대 반도체 칩 개발에 본격 나섬에 따라 이 시장을 둘러싸고 중국 기업과 외국기업간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전파신문이 보도했다. 특히 중국은 독자 규격의 3G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어 기존 외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구미업체들의 대대적인 연구개발(R&D) 계획 등과 맞물려 중국 휴대폰 시장이 3G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문은 전했다. 여기서 중국 정부가 자국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중 하나다.

◇공통 기술기반을 개발하자=중국 기업들의 3G 기술 개발은 지난 2002년 말 2억명을 돌파한 휴대폰 가입자수가 불과 1년 반 만에 3억명을 돌파할 만큼 초고속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기인한다.

중국 정부와 업체들은 현재 2G 및 2.5G 휴대폰 판매에 주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1년 후로 다가온 3G 시대를 목표로 공통 기반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내 유력 통신업체인 화웨이는 지난해 9월 독일 인피니온과 공동으로 WCDMA 방식의 휴대폰 플

랫폼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피니온은 3G 휴대폰에 필요한 WCDMA 방식 휴대폰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 칩을 탑재한 휴대폰을 화웨이가 제조·판매할 계획이다.

화웨이는 또 중국 독자의 3G 표준인 TD-SCDMA방식을 통해 현행 2.5G 기능을 업그레이드 TV전화, 사진 및 동영상 전송이 가능토록 하고 통신속도는 384Kbps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휴대폰업체인 떠푸타(多普達)는 TD-SCDMA와 별도로 CDMA2000 1xEV-DO방식의 휴대폰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는 북미 규격의 3G 휴대폰으로는 최초의 중국산 제품이다. 퀄컴의 칩셋이 탑재된 이 단말기는 중국내에서 아직 3G 서비스 면허가 교부되지 않아 2.75G로 규정돼 있다.

◇R&D에 전력하는 외국기업=중국 휴대폰시장을 겨냥해 유럽업체들은 중국에서 R&D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모토로라는 이미 덴진에 대형 공장과 R&D센터를 설립한 상태며 노키아는 올 5월 요르마 올틸라 회장이 중국을 방문, 향후 노키아의 휴대폰 40%를 베이징 R&D센터에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 정책에 주목하라=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 의존에서 탈피해 자국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자국기업의 특허 취득을 장려하면서 올 1월까지 국산 휴대폰 특허 신청 건수가 400건 이상에 달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 신식산업부는 3G 네트워크 기술시험을 올해 9월 종료할 방침인데 이미 지난달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회 이동통신국제포럼’을 통해 3G 시험이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앞으로 시스템과 단말기의 상호 조작, 네트워크 관리와 과금, 무선전파장애, 통신망 건설, 성능 평가 등을 실시해 본격적인 3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필립스, 미 가전업체 제미니 인수

필립스가 미국 가전업체인 제미니사를 인수, 북미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EE타임스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제미니는 지난 8년간 필립스의 제품을 공급해 왔는데 특히 제미니의 지난해 판매실적 2억달러 중 70%가 필립스 브랜드와 관계된 제품일 정도로 매출에서 필립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를 통해 필립스는 북미에서 가전제품과 PC부품 유통 비즈니스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필립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북미시장에서 필립스 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제품군의 다양화, 지역적인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필립스는 500명의 제미니 직원은 거의 대부분 승계할 것이며 새로운 통합팀은 3개월 안에 확정시킬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HP-게이트웨이, 특허분쟁 ‘접입가경’

세계적인 개인용 컴퓨터(PC) 업체인 휴렛패커드(HP)와 게이트웨이가 특허 침해 혐의로 상대방을 잇달아 고소하면서 강도 높은 특허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두 회사간 특허 공방은 연방법원에 이어 국제 무역위원회(ITC)으로 까지 번지는 등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델, HP에 이어 미 개인용 컴퓨터(PC)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이트웨이는 지난 2일(현지 시각) HP가 자



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게이트웨이는 HP가 ΔPC에 장착된 CD롬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제어 기술 ΔPC내 컴퓨터화된 TV 통합 기술 Δ 비디오 및 그래픽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컨트롤 기술 등 3가지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PC 기술을 둘러싼 두 회사간 특허 침해 공방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HP는 “게이트웨이가 우리의 PC 기술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샌디에고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먼저 제출했다.

이어 HP는 두달 뒤인 5월에 ITC에도 게이트웨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게이트웨이에 대한 특허 공세 압박을 높였다.

이에 대해 게이트웨이는 지난 5월 샌디에고 법원에 HP를 역제소 하는 한편 이번에 ITC에도 HP를 제소하면서 맞불 작전이라는 강공책을 펴고 있다. ITC는 HP의 소장 제출에 따라 지난 한달 동안 게이트웨이가 수입하고 있는 데스크톱, 노트북, 서버 등이 HP의 파워 관리를 포함 7가지 기술을 무단으로 침해 했는지를 조사해 왔다.

HP의 지적재산권 담당 부사장인 조 베이어는 게이트웨이의 이번 ITC 제소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게이트웨이를 상대로 전개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은 근거가 확실하며 게이트웨이의 모든 제품 라인에 확대될 수 있지만 게이트웨이가 주장하는 특허 침해 기술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명령하면 언제라도 게이트웨이와 법정 밖에서 화해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HP는 PC와 관련된 특허 기술을 6,000개나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두 회사가 화해하지

않으면 ITC 소송 건이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게이트웨이는 미국 시장에서는 선전하고 있지만 델과 HP의 저가 공세로 세계 시장에선 최근 몇년간 점유율이 급락하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 IBM, 어댑텍에 RFID 매각

인터페이스업체인 어댑텍이 RAID 사업 확대를 위해 IBM의 RAID 자산을 인수했다고 인터넷 사이트인 CM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어댑텍은 일부 RAID 데이터 보호 지적재산권과 RAID 제품, 그리고 RAID 전문지식 등을 IBM으로부터 매입했다. 이번 인수로 캘리포니아주 밀피타스에 있는 어댑텍은 RAID 컨트롤러를 생산해 IBM의 ‘i시리즈’와 ‘p시리즈’ 서버용으로 공급하게 된다. 어댑텍은 이번 인수로 자사의 연간 매출이 약 1억5,000만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댑텍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항은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오는 29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IBM, 프랑스에 RFID 센터 설립

IBM이 프랑스 니스에 전자태그(RFID) 시험센터를 오픈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IBM은 유럽내 소매, 제조, 운송 업체들 간에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전자태그(RFID)사업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니스에 RFID 센터를 새로 설립했다. IBM은 미국, 아시아에도 RFID 센터를 갖고 있다.

IBM의 글로벌 RFID 사업 책임자인 파예 홀란드는 “이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보다 많은 리소스(자원)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니스 센터를 개설했다”면서 “상근, 비상근 직원 100명이 이 곳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반까지는 RFID 태그가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NEC 등 24개사, 인터넷 안전대책 단체 설립

일반 가정에 컴퓨터 바이러스 정보나 안전 대처법 등 정보를 제공하는 협의체가 일본에서 설립됐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EC, NTT커뮤니케이션스(NTT컴), 후지쯔, 일본마이크로소프트(MS) 등 24개 IT업체와 관련 단체는 지난달 30일 ‘시큐리티대책추진협의회(SPREAD)’라는 단체를 구성, 앞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정보 및 안전 대책 정보 등을 일반 가정에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오는 9월부터 e메일 및 전화 등을 활용해 개인에게 바이러스 등 안전 대책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일반 가정에 인접한 가전 양판점이나 전문학교 등도 회원사 및 기관으로 확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안전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우선 협의회는 기본운영체계(OS)·인터넷 열람 SW·메일 SW 등 개인과 관련된 SW 및 기기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처법을 알려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정보처리추진기구(IPA) 등 정부 관련 기관 등과도 제휴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협의회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보급 확산으로 인터넷에 상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보고 정보 발신 및 개발 활동을 통해 보다 철저한 인터넷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